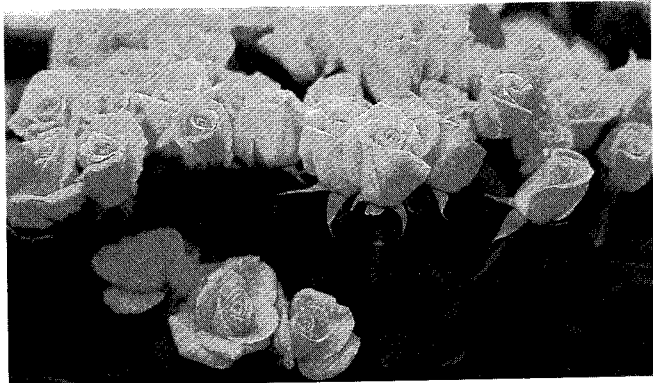


꽃

수입 개방 대응 대책은 무엇?



내수위주 탈피,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야
무분별한 수입은 국내농가에 타격만 줘

이 영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얼마전부터 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 학계,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제각기 우리의 화훼산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가히 뜨거우리만큼 논쟁이 활발하다.

농가들은 “한쪽에서는 꽃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강한 불만과 함께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수익성도 좋고, 정부가 UR대책의 일환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니 꽃을 재배해 보겠다” 한다.

한쪽에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농산물의 수출촉진이며, 우리의 화훼류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듯한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다른 한쪽에서는 예컨대 금년 1월 일부 절화상인들이 대만으로부터 상당량의 글라디올라스(절화)를 수입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접목선인장은 수출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과 뜨거운 논쟁은 우리 화훼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유익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화훼산업의 육성방안은 폭넓은 검토와 깊이있는 분석을 토대로한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같은 육성방안 마련에 꼭 포함돼야 할 분야중 하나인 화훼류 수입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소견을 제시코자 한다.

화훼류의 수입은 다른 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 재배 및 생산에 있어서의 특징, 소비특성 등과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화훼산업의 현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화훼산업의 특징과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실태와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화훼류의 수출입 실태를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화훼류의 수입전략은 「어떤 내용을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화훼산업의 특징

화훼는 집약적 농업이다

① 기술집약성 : 화훼는 예컨대 어버이 날에 맞춰서 카네이션을 개화시키거나, 졸업시즌에 맞춰서 글라디올라스를 피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물의 생육, 번식, 개화생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계절과 기상에 관계없이 예정된 날짜에 계획된 물량을 상품(商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

설과 장치도 필요하다. “꽃”이라는 상품의 관상가치는 재배기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특히 식물의 온도나 습도, 밝기(照明)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밀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화훼산업은 이처럼 고도의 재배 기술은 물론 상당히 정밀한 시설과 설비를 함께 필요로 하는 농업인 것이다.

[2] 자본집약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훼의 상업적 재배는 비닐하우스나 온실과 같은 재배사 외에도 최적의 생육조건을 조절해 주기 위한 난방, 통풍, 습도, 일조량 등의 조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타의 농작물에 비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평의 온실에서 백합을 재배하려면, 극히 개략적인 계산이기는 하지만, 온실건축비 1억 2천 만원(200평×60만원/평), 온풍기 1대(63,000kcal) 2백만원, 그리고 백합종구비 1천만원(5만개×200원/개)으로 모두 1억 3천 2백 만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자본규모는 다른 농작물들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이다.



[3] 노동집약성: 화훼상품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生物)일 뿐 아니라 그 상품성이 관상가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서 한송이 한송이를 다루어야 한다. 이 때문에 비록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많은 일손이 필요하면서도 기계화가 어렵다.

따라서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들은 고임금과 많은 노동력 수요로 인해 생산증대가 어렵고, 때문에 선진국 일수록 화훼류의 수입수요가 높다.

선진국일수록 수요공급 크다

화훼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소위 정신적 욕구가 큰 나라일수록, 또 화훼의 상업적 재배

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춘 나라일수록 발전해 있는 농업이다. 즉, 화훼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선진국 일수록 크고 강하며 다양하다.

구매자가 생산소비 좌우한다

화훼는 생필품이나 식량과는 달리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욕구에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정신적 욕구가 수요를 형성하고, 생산과 공급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수요가 없거나 미미한 국가에서는 화훼의 상업적 재배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화훼류의 가격은 생산비나 공급가격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구매자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농업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화훼산업을 이해하거나 다루려고 함으로써 야기되기 쉬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2. 화훼산업의 전망과 실태

화훼류의 수요는 의식주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고임금과 노동집약성으로 자금을 위한 생산증대가 어렵다. 때문에 기술과 자본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중진국들의 외화획득을 위한 화훼류 수출증가와 선진국들의 수입증가로 그 교역량은 최근들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화훼산업은 서늘한 해양성 기후와 사계절이 뚜렷한 기상조건, 그리고 손재주가 예리한 선천적인 손길과 감각 등에서 우수한 화훼상품의 생산에 유리하며, 최근 세계적인 화훼류 수입국으로 부상한 일본을 지척에 두고 있어서 수출가능성도 매우 밝은 편이다.

전망 밝지만 해결과제 산적

그러나 우리 화훼산업은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옴으로써 화훼농가들의 기술, 규모, 시설 등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와 연구개발, 그리고 제도와 정책 등 전반적으로 매

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지금까지의 화훼산업이 거의 전적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화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나 구상이 국제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는 가속화되고 있어서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의 화훼산업은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나, 해야 할 일들이 사방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출입동향과 당면과제

화훼류 교역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절화의 경우 표1에서와 같이 1985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입국들은 표2에서와 같이 거의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며, 이들의 수입액 증가율은 연평균 최고 48.3%씩에 이른다. 또한 주요 수출국들은 표3에서와 같이 중진국들이 대부분이고, 스페인은 특히 1985년 이후 연평균 107.4%의 기록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1. 세계 절화류 교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US\$)

연 도	수 입	수 출
1985	1,211	1,077
1986	1,637	1,447
1987	2,076	1,879
연평균 증가율(%)	30.9	32.1

자료: CLIF.,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of Cutflower, Netherland, 1988.

표2. 주요 수입국들의 절화류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US\$)

연 도	서 독	미 국	영 국	프랑스	네델란드	일 본*
1985	464	220	90	92	50	127
1986	650	234	120	144	83	105
1987	818	243	170	199	110	121
1988						168
연평균증가율(%)	32.8	5.1	37.4	47.1	48.3	9.8

자료: CLIF.,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of Cutflower, Netherland, 1988. *일본대장성 「일본무역월보」.

표3. 주요 수출국들의 절화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US\$)

연 도	네덜란	콜롬비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케 나	태 국	대 만*
1985	735	141	48	55	10	13	18	4
1986	1,022	155	78	68	19	22	14	4
1987	1,323	173	109	92	43	26	19	6
1988								11
연 평 균 증가율(%)	34.2	10.8	50.7	29.3	107.4	41.4	2.7	40.1

자료: CLIF.,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of Cutflower, Netherland, 1988. *대만 농림청, 「대만농업통계」, 1989.

수출입 무역적자 해소 시급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훼류의 교역규모가 '89년 현재 1천만 US\$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지만, 표4에서와 같이 무역적자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겠다. 무역적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6년 이후 30.2%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수입의 대부분이 종묘에 해당되는 구근과 묘목류라는 점이다. 이를 단순히 초기적인 당연한 현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종묘를 원자재로 한 최종상품인 절화류의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기는 커녕 '87년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반면 연간 10만US\$ 단위 이상씩 매년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은 접목선인장 하나 뿐이다.

4. 화훼류 수입의 정책방향

이 같은 현재의 실태를 토대로 우리의 화훼산업이 절화생산 보다는 종묘에 해당되는 종구(種球)나 종자의 생산에 노력함으로써 우선은 수입을 대처해 나가고 장차는 수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신품종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화훼의 종묘생산은 신품종 개발을 바탕으로 하지 못할 경우, 위탁생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위탁생산은 우리보다 노임이 싼 국가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또한 신제품개발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 장기간의 연구개발, 그리고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반면 우리의 화훼산업은 지금까지 내수위주로 성장해 옴으로써, 생산품목과 품종이 국제적이지 못하고,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품종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식물특허제도」를 택하지 않고

있어서, 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제품 수출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제품의 국내개발은 단시간 내에 기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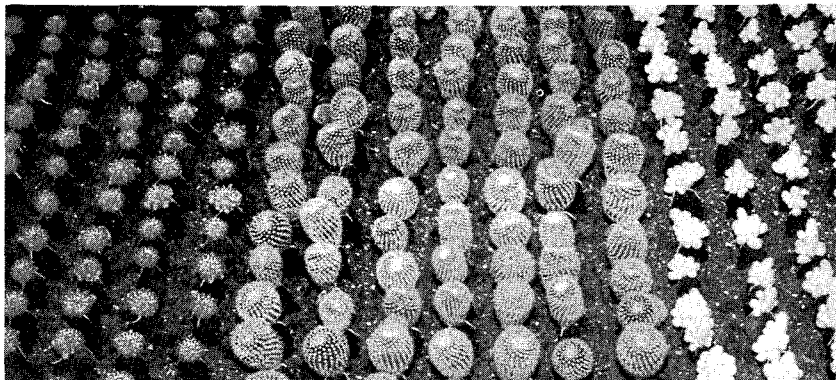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신제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도입된 신제품들은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재료식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분간은 오히려 신제품의 수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품종이

표4. 연도별 화훼류 수출입 실적, 1986~89

(단위: 천US\$)

연도		품 목 별					
		계	구근	묘목	종자	절화	절지절엽
1986	수입	3,681	1,332	1,153	1,037	24	135
	수출	886	19	336	235	33	263
	수지	△2,795	△1,313	△817	△802	9	128
1987	수입	1,228	1,506	1,616	1,088	37	251
	수출	1,228	59	383	243	100	443
	수지	△3,270	△1,447	△1,233	△845	63	192
1988	수입	7,210	1,625	3,996	1,388	41	161
	수출	1,417	12	625	269	47	465
	수지	△5,793	△1,613	△3,371	△1,119	6	304
1989	수입	8,269	2,261	4,665	1,132	119	91
	수출	2,104	7	1,043	490	84	481
	수지	△6,165	△2,254	△3,622	△642	△35	390

자료: 농림수산부, 「화훼산업 현황」, 각연도



우리농가에 소개되고, 정부와 종묘업계는 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또다른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절화류 수입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절화류의 수입은 그것이 비록 연간 12만US\$ 수준에 불과하고, 그래서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 1월의 졸업시즌에 맞춘 대만으로부터의 글라디올라스 절화수입은 대만으로 부터 수입압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내산의 가격을 예년의 60%선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국내 농가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물론 꽃상인들이 값싼 절화를 수입하여 절화의 70%가량이 소비

되는 화환이나 꽃바구니를 만들어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들 꽃상인들이 우리 화훼농가들과 상호의 존적인 공생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우리 화훼농가들로 부터의 공동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 화훼농가들이 아직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우리의 경제력,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소득수준, 그리고 화훼류 소비의 70% 정도가 행사용에 쓰여지고 있어서 극히 적은 양의 수입에도 그 충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절화류의 수입이 비록 제도적,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 수입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